

“2022 호랑이 해, KIA 타이거즈 해로 만들겠다”

김종국 KIA 감독 취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해를 KIA 타이거즈의 해로 만들겠다”며 김종국 신임 감독이 뜨거운 2022시즌을 예고했다.

KIA 김종국 감독이 6일 기아 오토랜드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의 항해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30년 가까이 몸담은 KIA 타이거즈라는 명문 구단의 사령탑에 올랐다는 것이 큰 영광이다”며 “책임감도 느낀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바꾸고 기초부터 탄탄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소통과 신뢰로 선수단을 뭉치게 하겠다. ‘팀 퍼스트’ 정신으로 뭉치면 못할 일도 없을 것이다. 항상 제일 높은 곳을 생각하고 있다”며 “선수들에게 추구하는 것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플레이다. 야구는 선수가 하는 것이다. 선수들이 마음대로 플레이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놓겠다. 2022년은 검은 호랑이해로 알고 있다. 가슴 뛰는 시즌, KIA 타이거즈의 해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감독으로 지휘봉을 잡으면서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

▲전문 파트 코치 때는 주루-좌전에 신경 많이 썼는데 수석코치하면서부터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면서 팀의 문제점, 다른 파트 문제점과 장단점을 더 잘 알게 됐다. 20년 넘게 있으면서 팀의 장단점을 많이 알고, 적시 적소에 잘 쓸 수 있게 준비 잘했다. -26년 입은 유니폼을 다른 의미로 입었는데.

▲96년 타이거즈 입단했을 때보다 더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이다. 취임식하면서 입은 유니폼은 감개무량하고 벅하다.

-구단이 FA 등 지원을 많이 해준 만큼 부담도 클 것 같다.

▲지원 많이 해주셨는데 기대도 많이 하신다는 생각도 든다. 프로는 팀 승리를 위해 잘해야 한다. 나성범, 양현종이 없었다라도 이기려는 마음은 같았겠지만, 기동성이 될 수 있는 두 선수가 와서 기대도 많이 되고 책임감도 느낀다. 자신 있다. 팬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

▲외국인 선수, 외야 한 자리 구성은.

-남은 외국인 선수는 곧 정해될 것 같다. 외야에서 브리토, 나성범 주전은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좌익수는 누가 주전이 될지 모르겠다. 시범경기까지 계속 기회를 줄 것이다. 기회를 차지하는 선수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 기초부터 탄탄하게 소통과 신뢰로 선수단 뭉치게 하겠다 포지션별 무한경쟁해야”

주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시즌을 목표로 이야기했는데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가.

-양현종 들어오면서 국내 선발 투수진이 안정화됐다. 로테이션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이고 장현식, 정해영, 전상현, 박준표, 유승철 등으로 투수진이 좋아졌다. 최원준의 군입대로 공백은 있지만 나성범이라는 확실한 클리처 히터가 들어왔고 외야진이 좋아졌다. 내야진도 무한 경쟁 체제로 야수진이 더 탄탄해졌다.

▲선수들 경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김선빈, 브리토, 나성범, 최형우를 빼고는 누가 스타팅 나갈지 모른다. 선수들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나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코칭스태프와 같이 토론하고 의논하면서 시즌을 준비할 것 같다.

▲지난해처럼 포수 경쟁 체제로 갈 것인지.

-포수 부문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전 포수가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수라는 위치가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체력 안배도 필요하지만 확실한 주전 포수가 있는 게 팀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오래 코치 생활을 하면서 파악한 KIA 선수들의 장단점은.

-야수 같은 경우 타격만 잘하려고 하는 게 있다. 1군에서 더 좋은 선수로 갈 수 있는 장점도 많은데, 단점만 보완하려는 모습이였다. 장단점을 잘 알아야 선수에 맞게 준비하겠다. 주력 좋고, 베이스 러닝 잘하면 후반 중요한 순간에 쓸 수 있을 것이고, 수비 좋은 선수는 이기고 있는 상황에 나갈 것이고, 타격 좋은 선수는 중요한 순간 대타로 나갈 것이다. 모든 선수가 주전이 될 수 없다. 백업 선수도 장단점에 맞게 준비하려고 한다.

▲무한 경쟁을 예고했는데 어느 포지션이 기대되는지.



6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이 모자를 고쳐 쓰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포수도 마찬가지로, 1루도 황대인, 김석환이 될 수 있고, 유격수는 박찬호와 김도영도 지켜봐야 한다. 3루도 류지혁, 김태진 외에 박민도 있다. 좌익수도 새로 합류하게 될 고종욱과 김석환, 이창진, 이우성, 나지완이 경쟁할 것이다.

▲어떤 감독이 되고 싶은지.

-팀에 오래 있으면서 선수들의 장단점, 마음까지도 알고 있다. 가깝게 이야기하고 경향이 소통하겠다. 단호할 때는 확실하게 하겠다. 김용용 감독님 때 아주 어린 선수였는데 그때 내 느낌을 단호하신 분이였다. 선수 구성을 확실하게 하셨던 감독님이

다. 결정할 때는 확실하게 단호하게 해야 한다. 팀 승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진감용 수석코치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건지.

-함께 대표팀 코치를 하면서도 팀, 방향성을 놓고 많이 이야기했다. 내가 수석코치를 하면서 게임 때 놓치는 게 있으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줬다.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줬다. 감독한테 한마디 해주면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거리낌 없이 부족한 부분이나 못 봤던 부분들 특히 게임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달라고 하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2년 프로야구 4월 2일 플레이볼

KIA, 광주서 LG와 개막전

2022년 프로야구가 4월 2일 대장정을 시작한다. 새 사령탑을 앞세운 KIA 타이거즈는 안방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KBO가 6일 2022 신한은행 SOL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리그 출범 40주년을 올 시즌은 토요일인 4월 2일 개막해 팀 간 16차전, 팀 당 144경기씩 총 729경기가 펼쳐진다.

개막전은 2020 시즌 순위 상위 5개 팀의 홈경기로 대진이 구성됐다. 4위 LG는 두산과 구장이 중복되면서 6위인 KIA의 홈경기로 개막전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광주 LG-KIA, 잠실 한화-두산, 고척 롯데-기움, 수원 삼성-KT, 창원 SSG-NC 등 5개 구장에서 개막 2연전이 전개된다.

KIA는 주중 첫 시리즈도 챔피언스필드에서 치른다.

4월 5일부터 한화이글스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치르고, 이어 첫 원정 경기를 위해 문학으로 떠난다. KIA는 4월 8일부터 SSG를 상대로 2022시즌 첫 원정 일정을 소화한다.

5월 5일(목) 어린이날 경기도 챔피언스필드에서 치른다.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KIA는 올 시즌 홈에서 기움 히어로즈와 어린이날 경기를 갖는다. 또 잠실 두산-LG, 문학 한화-SSG, 수원 롯데-KT, 대구 NC-삼성의 어린이날 대진이 마련됐다.

울스타전은 토요일인 7월 16일 개최되며,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울스타브레이크로 리그가 멈춘다.

단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 10-25일) 기간에는 KBO리그가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올 시즌 목표는 리빌딩이 아니라 강팀”

KIA 최준영 대표·장정석 단장

“전력향상 위해 아낌없이 투자”
“선수 보완도 끊임없이 하겠다”

KIA 타이거즈의 방향은 확실했다. 리빌딩이 아니라 ‘강팀’이 KIA가 2022시즌 목표로 하는 지점이다.

KIA는 6일 기아 오토랜드 대강당에서 김종국 신임 감독의 취임식을 열었다. 새로 팀을 구성한 최준영 대표이사과 장정석 단장도 단장도 단장도 올라 김종국 감독의 취임을 축하하고, 팀의 방향을 이야기했다.

새로 구성된 핵심 3인방의 시선은 모두 ‘가을잔치’로 향해있다.

지난 시즌 최하위 싸움을 하면서 9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리빌딩’이 아닌 성격으로 ‘명가재건’ 결음을 재촉하겠다는 각오다.

최준영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서 지난 실패를 인정하고,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는 “최근 KIA는 팬 여러분과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선수단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프런트 역시 큰 책임이 있었다”며 “모든 구성원이 공동 책임의식을 느끼며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큰 변화를 줬다. 지금도 끊임없는 내부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리빌딩 보다 약점 보완을 통한 정상 도전에 타이거즈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며 “나를 비롯한 구단 프런트는 선수단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선수단과 소통하면서 팬들이 가장 사랑하고 응원할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 뚝심”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대표이사가 ‘즐거움을 드리는 야구, 찾고 싶은 챔피언스필드’를 위한 변화를 이야기했고,



6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 대강당에서 열린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 취임식에서 최준영(왼쪽) 대표이사, 장정석 단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조용히 또 강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장정석 단장도 “아직 끝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정석 단장은 “보완은 끊임이 없는 것 같다. 적극적인 투자는 보여드렸다. FA 2건으로 보셨을 것이라고 보고, KIA 선수층 구성을 보면 분명 약점이 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또 꾸준한 투자를 통해 빈틈을 채워가고 있는 KIA는 효율성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시즌 KIA는 윌리엄스 감독이 1군과 퓨처스 선수단을 통합 관리하는 체제로 바꿨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원점에서 새 판을 짜 KIA는 올 시즌 1군은 김종

국 감독을 중심으로 ‘성적’에 집중하도록 하고, 퓨처스팀은 단장 관리 속에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마련토록 했다.

장정석 단장은 “감독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선수 로스트 절반을 입히는 것이다. 완벽하게 뭔가 바꿔놓는다기보다는 앞서 좋은 육성 방법은 가져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는 것이다”며 “선수들은 야구만 한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힘이 필요한 선수가 있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고 선택해서 체계적으로 방향성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프로의 기본, 성적을 이야기한 KIA가 ‘삼위일체’로 새로운 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형우 “나는 KIA의 6번 타자”

팀을 위해 하위타순 자처
“나이 40 ... 중심타선은
후배들에 많은 기회 주고파”

블록에 접어든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가 팀을 위한 ‘6번 타자’를 자처했다.

KIA 최형우는 6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 대강당에서 열린 김종국 감독 취임식에 선수 대표로 참가했다.

꽃다발을 건네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 최형우는 취임식이 끝나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결승선으로 향해 가는 자신의 야구 인생을 이야기했다.

“올 시즌 말고 싶은 타순”에 대한 질문을 받은 최형우는 “6번하고 싶다. 이제 살짝 한발 물러나고 싶다”며 “나이도 40이 됐고, 잘 하든 못 하든 팀 후배들이 중심에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팀이 좋아지는 방향이다. 나는 곧 나가니까 내가 잡고 있기도는 누구든 자리를 차지해서 경험을 쌓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그만큼 나성범의 영입을 바꿨던 선수 중 한 명이 최형우다.

최형우는 “(나성범 영입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다. 프런트에게 연락해서 잘했다고 고맙다고 했다”며 “전력에 플러스가 될 선수이다. 나성범뿐만 아니라 양현종도 와서 팀이 강해졌다는 것을 확신한다. 올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나도 처음 FA로 왔을 때 (김)주찬이 형 (이)병호 형이 잘 반겨줘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여기 있는 선수들 성격이 좋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면 당연히 야구는 잘할 것이다”고 나성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후배들에게 타선의 중심을 맡기고 한발 물러나 팀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지켜보고 싶다는 게 최형우의 바람.

그는 “내 앞에 설 선수로 나성범, 황대인, 외국인 타자도 있고 다른 선수들, 김석환이라는 선수



6일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 대강당에서 열린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 취임식에 참석한 최형우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도 있다”며 “내가 막다가 휘 떠나는 것보다는 내가 아직 있을 때 후배들이 중심 타선의 무게를 미리 경험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뒤에서 받쳐 주다가 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관건은 ‘눈’이다. 꾸준함의 대명사였던 최형우는 지난 시즌 막막 이상으로 고전했다.

최형우는 “다시 안 걸리기 바란다. 현재 컨디션은 좋다. 지난해 힘든 것은 잊고 올해 새롭게 다시 해보려고 한다. 후배들과 작년에 처음 전주로 가서 훈련했는데 ‘폭망’했다. 올해는 그걸 깨닫는 생각으로 황대인, SSG의 하재훈과 다시 전주로 간다(웃음)”며 “올 시즌 특별한 목표는 없다.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최대한 보고 싶다. 자연적으로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년보다 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작년 타점 보다 안 높으면 그만해야 한다”고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